

제35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 및 발전방향

일시

2022. 11.18 (금) 14:00-17:30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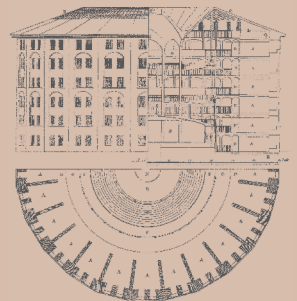
백석대학교 대강당 (생활관 2층)

주최

(사)아시아교정포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제35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일시

2022. 11.18 (금) 14:00-17:30

## 장소

백석대학교 대강당 (생활관 2층)

## 주최

(사)아시아교정포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개회식

14:00~14:20

- **개회사** **신연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 / 성결대학교 교수
- **환영사** **송병호**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학부장
- **환영사**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 **축사** **최제영**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담당
- **격려사**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정기총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 규정 교육

좌장 **이연담**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주제 발표 및 토론

14:20~15:00

주제발표 1

**교정학과 교정교육/상담치료의 의미** 13

- **김안식**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교수
- **토론** **박연규**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명예교수  
**김성호**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15:30~16:10

주제발표 2

**교정교육의 발전과정 분석** 49

- **유주영** 경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토론** **이경재** 충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6:10~16:50

주제발표 3

**교정상담의 현황 및 과제** 65

- **신기숙** 전 법무부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심리학 박사
- **토론** **이형섭**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사회복지학박사  
**이미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마무리 및 종합 토론

16:50~17:30

- **종합토론** **사회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 개 회 사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백석대학교가 있는 이곳까지 와주신 분들과 저희 학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가을의 끝자락에 학계와 교정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협력하여 시대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인 만큼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모인 이번 학회는 저희 (사)아시아교정포럼으로서 35번째 갖는 학술대회라는 오랜 숙성 끝에 내어 놓은 열매이고, 그간 형사사법 영역의 인재배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범죄인 교화에 민간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오신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도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 번 학술대회는 각자의 독특한 역량을 가진 학계와 대학,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구성된 다분야가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정의 인문학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아시아교정포럼은 미래지향적 교정이념을 선도하고, 범죄문제와 교정처우에 관한 지식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융합하고 교류하며 협력하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은 인간존엄성과 인도주의 및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범죄인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아시아교정포럼이 지향하는 교정의 인문학적 가치에 부합하는 실천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특별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수고하여 연구하고 공들여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시는 백석대학교 김 안식 교수님, 경일대 유 주영 교수님, 신 기숙 심리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과 좌장을 맡아 주신 네 분의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바쁜 공무 가운데서도 축사로 격려해 주신 법무부 교정본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송 병호 백석대 경찰학부장님과 아시아교정포럼의 한결같은 후원자이신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도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1.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신 연 희

##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회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주최하신 (사)아시아교정포럼 신연희학회회장님, 이백철아시아교정포럼이사장님, 공동학술대회에 응해주신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님과 대한민국 교정을 책임지시는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에 직접 참여하시고 축사까지 수고해주시는 교정본부 최제영 교정정책담당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아시아교정포럼은 2007년 창립된 이래 연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 연 3회 학술지「교정담론」을 발간하는 우리나라의 교정 분야를 대표하여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학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교정담론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규범학적 「교정학」의 한계를 넘어, 「교정인문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문교정연구소」를 창립, 발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을 시상할 통해 학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에 더욱 발전할 모습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교정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라 할 것입니다. 신임 교정본부장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여,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을 만들겠다. 성공적인 사용자 교정교화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임의 일성입니다. 하지만 “흉악범의 출소반대 투쟁!”과 “출소자의 재범율 현황”에서 보듯, 국민들은 교정의 성과에 의문을 가집니다.

이러한 한국교정의 제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추계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대회의 대주제가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며, 대회 공동참여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동참한 것 자체로 의의가 배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주제는 “교정학과의 교정교육/상담치료의 의미”, “교정교육의 발전과정 분석”, “교정상담의 현황과 과제”로 범죄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제발표와 토론 및 사회로 수고해 주실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오늘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도드립니다.

2022.11.18.

백석대학교 경찰학부장 송 병 호

## 환영사

교정사목을 하면서 많은 수용자 특별히 사형수를 오랫동안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변하더라도 천천히 변합니다.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변합니다.

하지만, 변합니다. 변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 업무와 학문에 '교정'(矯正)이라고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가두어 감시하는 업무일 뿐이겠지요.

수용자들의 효과적인 교정 방법은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이고, 심리상담사와 나누는 것이 상담이며,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맺음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서는 이미 학문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뭇거림 없이 온전히 사랑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하고, 강조한다면, 그 기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또 관계 당국은 효과적인 운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교정교육과 상담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이에 (사)아시아 교정포럼이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약 3년간 교육과 상담을 교정시설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교정'이 빠진 '교정'프로그램, 사실상의 격리, 감시만을 한 기간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간염병 확산 우려의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학술대회가 주는 의미가 큼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교정교육과 상담의 의미를 더 깨닫고, 더욱더 효과



적인 교정상담의 발전 방향을 짚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학술대회의 결과가 교정당국에 전달되어, 교정프로그램에서 이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간염병 확산 혹은 관리감독의 불편함을 이유로 생략되는 일이 현장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분들, 발제와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최제영입니다.

먼저, 교정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정이 발전하는데 이론적 밑거름을 제공해 주신 아시아교정포럼과 교정분야의 후진 양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백석대학교,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만들어 주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3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이백철 이사장님, 신현희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아시아교정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학계의 전문가와 실무행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정정책은 과거 단순 수용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수용자 내면의 변화를 통한 수용자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심리치료,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단계적 심리치료와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수용자 내면의 자발적인 인성변화를 유도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범죄유형과 개별 특성에 맞는 13종의 맞춤형 처우를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교정시설 입소로 인한 교육의 단절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 교정시설 내 정신병적 수용자들을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며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귀중한 고견들은 향후 교정의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최제영

주제발표 1

# 교정학과 교정교육/ 상담치료의 의미

김 안 식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교수)





# 교정학과 교정교육/상담치료의 의미



백석대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김 안 식 교수

## 1. 서론

교정학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 교정학의 현재 위치는 어떠한가. 앞으로 교정학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는 30년동안 교도관으로 교정현장에서 근무했고 퇴직 후 현재까지 6년동안 대학에서 교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에게 무거운 질문들이다. 지난 10월 28일은 77주년 교정의날 기념일이였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당시 19개의 전국 교정시설을 우리가 인수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어느덧 7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교정 분야에 있어서도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프로그램과 함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관련 국가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정학의 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다. 현재 전국에서 교정학을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조직에는 군, 경찰, 교정, 소방이 있으며, 이들을 제복공무원(uniform officer) 혹은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에서 sworn officer라 부른다. 이러한 정부조직은 학문적으로는 각각 군사학, 경찰학, 교정학, 소방학 등과 연계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교정학이 가장 열세에 있다고 여겨진다.

학문이 발전하려면 학문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하고, 학문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정학은 일단 그 특성이 분명하다고 발하기가 어렵다. 흔히 교정학은 종합학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특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즉, 교정학의 주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정학에 대한 수요도 매우 한정적이다. 교정직공무원이나 보호직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진로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교정직공무원이나 보호직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고 특히 교정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해당 공무원시험에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는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정학의 의미와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정학의 수요를 증가시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교정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교정교육과 상담치료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 2. 교정학의 의의

교정학(矯正學, Corrections)은 교정(矯正)에 관한 학문이며, 교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교정이란 무엇인가? 교정(矯正)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형(行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교정(矯正)이란 용어는 원래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서 법률적으로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행형(行刑)은 “자유형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수용 등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허주욱, 3p)

교정학은 과거에는 감옥학·행형학 등으로 불리었으며, 주로 범죄자에 대한 구금시설과 수용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목적이 강하였기 때문에 개선이나 교육 등은 미미하였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행형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울리우스(Nikolaus Julius)가 ‘교도소 또는 행형의 개선에 관한 강의’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금용명, 4p), 주로 구금시설과 사회 내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다양한 행위, 이론, 운영 등을 포함하였다. 즉 행형학이란 행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그리고 집행시설에 초점을 맞춘 모든 원칙, 학설 및 규칙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이백철, 4p) 현행 형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형학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결국 행형학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벌의 집행에 중심을 두는 개념이고,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응보, 행형시설의 안전한 운영, 형집행 기간 동안 수용자의 건강유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까지는 응보형주의에 바탕하여 범죄자에 대한 복수, 가혹한 형벌, 공개집행 등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가 이루어졌다. 이후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형벌

의 목적이 단순한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리주의가 나타났으며 베카리아(Beccaria)가 이를 대표한다. 공리주의는 형법이나 감옥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하워드(Howard)의 감옥개량운동도 이 시대에 전개되었다. 이후 영미계통에서는 독거제, 종교활동, 교도작업, 가석방제도, 수용자 자치제, 선시제도 등이 발전하였으며, 독일계통에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 특별권력관계 이론 등이 나타났다.

20세기에 들어와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자유형의 집행은 단순히 형사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형의 집행(Strafvollstreckung)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선과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행형(Strafvollzug)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금융명 3) 한편, 미국에서는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범죄원인이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과 함께 범죄자에 대한 개선과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 나타나고, 이때 행형·행형학(Penology)이 교정(Corrections)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이백철 114) 종전까지 교도소 개선(Prison Reform)의 명목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상황에 사회복귀(Rehabilitation), 교정(Corrections) 개념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정학은 행형학의 발전적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교정학은 비행자 혹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비행성 또는 범죄적 요소를 순화시키고, 동시에 준법시민으로서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존재하는 교정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각 부문과의 연계 속에서 행해지는 제반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백철, 9p) 이러한 교정학의 정의에서 보듯이, 과거 행형학보다 그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정시설에서도 범죄적 요소에 관한 확인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범죄자 분류가 필요하고, 이들을 순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종교활동, 상담, 심리치료 등이 요구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준법의식 고취, 직업훈련, 귀휴, 외부통근작업 등 다양한 사회연계 프로그램들과 자원봉사자의 교정활동과 지역사회의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나아가 시설내 처우뿐만 아니라 사회내 처우까지 포함하여, 교정학은 그 연구범위를 계속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의 역사, 교정공무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건축, 범죄자에 대한 특별예방과 재범방지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정에 대한 개념은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최협의의 교정은 수형자(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 구류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 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절차 및 처우를 말한다. 협의의 교정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를 포함하여 수형자에 대한 교정과 미결수용자에 대한 구

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나아가, 광의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에 소년원 수용처분, 치료감호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최광의의 교정은 광의의 교정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즉, 최광의의 교정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의 시설내처우(custodial treatment)는 물론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시설내 교정, 지역사회교정, 성인교정, 소년교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백철 9p) 반면에, 교정을 협의적 교정과 광의적 교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협의로는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와 구류형 받은 자를 교도소 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절차와 여기에 미결수용자와 보안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며,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내 처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정학 교재는 교정의 범위를 최광의의 교정, 혹은 광의적 교정으로 정의하여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포함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최광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 법무부(일본은 법무성) 내에 교정본부(교정국)와 범죄예방정책국(보호국)을 따로 두고 있어 시설내 처우만을 교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교정과 행형이라는 용어가 대체적으로 동의어로서 혼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교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미국은 Corrections(교정), 일본도 교정(矯正)이라는 용어를 널리 쓰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인 교정본부는 정부수립 후 1948년에 법무부 형정국(刑政局)으로 발족하였는데, 1962년에 형정국에서 교정국(矯政局)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에 교정국에서 교정본부(矯正本部)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이미 60여년 전부터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행형과 교정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행형이라는 용어는 범죄자 처우의 형식적·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임에 반해, 교정은 범죄자 처우의 실질적·이념적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교정 개념은 응보, 일반예방, 고통의 부과 또는 격리에 의한 특별예방 등 행형의 목적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더욱 중요시하거나 이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의 사무관장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규정함으로써 교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여전히 행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속히 교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1950년 제정 당시에는 행형법이라 하여 제1조에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

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년 이를 전면 개정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1조에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정학은 형벌집행과 행형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기존의 행형학을 뛰어 넘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련 학문들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교정학이라는 학문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교정학의 가장 중심 분야를 형벌의 공정한 집행 및 절차 준수, 수용자의 인권보호,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그 최종 목표 내지 종착점은 재범방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교정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 수용자 권리보장,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처우 실시를 통하여 범죄자를 재사회화시킴으로써 재범방지를 실현하고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명, 16p) 특히 교정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종전의 감옥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그 법률의 명칭을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刑事收容施設及び被收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이라고 변경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근대 감옥의 발전을 보더라도 영국의 브라이드웰 감옥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징치장이 그 출발이 되었고, 이후 이탈리아의 산미켈레 소년감화원, 특히 방사익형 형태로 근대적 감옥 시설의 모범을 보여준 벨기에 간트감옥, 독거제의 효시가 되었던 미국의 월넛스트리트 구치감, 독거·혼거의 절충형태인 오번감옥, 그리고 현대의 캠퍼스형 교도소와 고층빌딩형 구치소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의 발전은 수용자 처우와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 교정학의 현재 상황

#### 1) 교정학 전공 현황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정학을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학은 백석대 경찰학부 범죄교정학전공과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학전공 두 군데 밖에 없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을 포함하여 몇몇 대학에서 교정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였지만, 2~3년 내에 모두 폐지되었

다. 경기대 교정학과가 1988년에 신설되어 유일하게 3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는데 2023년부터 범죄교정심리학과로 변경하여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백석대 범죄교정학전공은 2017년에 경찰학부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재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60여명에 불과하다. 경기대의 경우, 처음에는 교정학과로 신설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교정보호학과로, 그리고 2020년에 범죄교정학과로 변경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년부터는 범죄교정심리학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백석대의 경우는 2017년 교정보호학전공으로 신설되었지만, 경찰학부 150여명의 학생 중 10여명만이 선택함으로써 2019년에 학생들이 경비보안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교정보안학전공으로 변경하였다가, 2022년에 학생들이 범죄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범죄교정학전공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2학년 신입생 중 범죄교정학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9명에 불과하였다. 경찰학부 내에서 범죄교정학과의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교정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교정학의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도 교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낮다는 것이다. 교정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교정학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교정직에 입직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은 것이 교정학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정학의 정체성 결여라고 생각한다. 교정학의 특성과 연구대상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교정학과 유사한 과목들, 즉 행형학, 범죄학, 형사정책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국내에서 발간된 행형학, 교정학, 범죄학, 형사정책 교재들의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정학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학이나 소방학에 비하여 그 수요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과거에는 교정직 9급시험에서 교정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지만, 2008년부터 교정직 9급시험에서 교정학개론이 수학, 사회, 과학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조정됨으로써 교정학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 다행히 2022년부터 교정학개론이 교정직 9급시험의 필수과목이 됨으로써 미미하지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교정기관과 대학과의 산학관계가 미약하고, 교정현장의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만한 전공학문의 발전이 미흡하며, 특히 교정에 관한 국가차원의 연구소나 공공 연구소가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국비장학생 제도를 통하여 대학에서 교정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교정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이 제도도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다섯째, 현재 우리 교정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교정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도 극히 일부의 특채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변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국한되었다. 특히

교정관련 국가자격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오래 전에 간혹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채가 있었는데, 이러한 자격증은 법무부와는 무관한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여 발부하는 자격증들이다.

그렇다면 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을 극복하고 교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

## 2) 교정홍보 강화

교정에 관한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마치 교정이 부조리와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국민들에게 교정의 실상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나이가 든 구세대 사람들이 젊은 신세대 보다 더 심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범죄교정학과 주임교수로서 학생들과 진로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교정으로 진로를 정하여도 부모님들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다. 이러한 교정에 대한 낮은 평가는 결국 교도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정을 전공으로 선택하려고 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교도관의 사기진작은 교정학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교도관의 사기가 진작되면 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도관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교도관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정학 공부를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교도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특히 교정직시험 합격 후 법무연수원에서의 교도관 신입교육 때 교도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8주에 불과한 연수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교과과목을 개선하며, 강사진의 전문화 등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 교정연수소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일반과목 : 교정총론, 헌법, 법학개론, 국가공무원법, 직업윤리
- 전문과목 : 형사법, 행형법, 소년원법, 형사정책, 교정심리학, 교정윤리학, 교정사회학, 교정실무
- 실기·훈련 : 계구사용법, 권총사용법, 소방훈련, 구급법, 호신술, 유도, 검도, 집단행동요령, 야외활동훈련, 체육



### 3) 교정학의 정체성 확립

교정학의 발전을 위해서 교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정학과 유사한 행형학, 범죄학, 형사정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학은 범죄원인을 밝히는데 치중하고, 형사정책은 범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범죄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면을 중시한다. 반면에 교정학은 행형학을 바탕으로 하여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시설의 운영,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 등으로 그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4) 교정학에 대한 수요 증가 필요

교정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부터 교정학개론이 교정직 9급시험의 필수과목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일부 공무원시험에서 교정학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한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2022. 1. 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 직렬에서 교정학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 ① 교정직 5급(2명 선발): 필수(4과목)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② 검찰직 5급(2명 선발): 필수(4과목)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③ 교정직 7급(40명 선발): 필수(4과목) : 교정학, 헌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그런데 교정직 7급시험의 경우,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이 포함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사실 이 단서는 교정학의 연구 범위와 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시험과목으로 채택된 모든 교정학 시험에는 형사정책과 행형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교정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정직 승진시험에서는 교정학을 필수과목으로 하면서 “형사정책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 ④ 교정직 9급(남 705명, 여 118명, 저소득 25명 선발): 선택형 필수(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정직 9급시험의 교정학개론에도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이 포함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교정에 속하는 보호직 공무원 시험과목에는 5급과 7급 모두 교정학 대신에 형사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호직 9급시험 과목에는 교정학 대신 사회복지학개론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형사소송법개론 대신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학개론, 형사정책개론이 필수 시험과목으로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학부 학생들로서 경찰유사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찰행정 특채시험은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등 6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고, 나머지 선택과목들을 포함하여 45학점을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과목에는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보안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등 무려 30과목이나 되고, 이들과 유사한 과목은 수백개의 과목에 이른다. 교정학은 형사정책론의 유사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전국에는 200여개 가까운 대학에 경찰학과가 있는데 경찰청에서 지정 고시한 경찰관련 필수 및 선택과목들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학 교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경찰전공 과목들의 존재가 부러울 뿐이다.

그런데 2023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를 보면, 필수 4과목에 헌법,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을 포함하고 있는데, 범죄학의 범위를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라고 명시함으로써 범죄학연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국내 대학 교정학전공 현황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학전공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대학 1학년 때는 기초과정으로서 교정학개론이 수강과목에 해당하며, 다음 과목들은 교정전공 과목들에 해당한다. 우선 과목 명칭에 교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교정심리학, 교정연구방법론, 교정통계, 교정상담이론 및 교정상담 실습, 청소년교정보호학, 교정보호처우론, 교정복지론, 교정인권, 교정학특강, 교정사회론, 교정역사와 철학이 있으며, 여기에 보호관찰론과 분류심사론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정인권, 교정역사와 철학 과목이 돋보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교정교육론, 교정건축, 교정조직(인사, 예산 포함), 교정리더십(갈등과 그 해소방안 포함), 교정사고, 교정무도 등이 포함되면 더욱 바람직한 교과과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 경기대 범죄교정학전공 교과과정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비고
2학년	1학기	교정심리학	3	
		교정연구방법론	3	
		범죄원인론	3	
		형법총론	3	
		형사사법개론	3	
	2학기	교정통계	3	실습 1시간
		범죄예방정책론	3	
		소년사법개론	3	
형법각론		3		
3학년	1학기	교정상담이론	3	
		범죄교정전공 개별진로연구	1	
		사회문제론	3	
		청소년교정보호학	3	
		형사소송법	3	
	2학기	교정보호처우론	3	
		교정복지론(캡스톤디자인)	3	
		교정상담실습	3	실습 3시간
		교정인권	3	
		교정학특강	3	
4학년	1학기	보호관찰론	3	
		교정사회론	3	
		교정역사와 철학	3	
		심리검사 및 평가	3	
	2학기	청소년 생활지도	3	실습 3시간
		범죄피해자학	3	
		분류심사론	3	
		여성범죄론	3	
		형사법특강	3	
		총계	28개 과목	83학점

다음 표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전공 교육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백석대 범죄교정학전공이 신설된 2017년부터 주임교수로서 학과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전공 명칭과 교과과정을 세 번이나 변경하였다. 경찰학부 내에서 어떡하든지 전공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과 운영의 가장 큰 목표이고 과제였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작업이었지만 계속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하였다. 신설 당시 교정보호학전공 시에는 교과과정이 거의 경기대 교정보호학과와 크게 차

이가 없었다. 첫 해에 경찰학부 전체 150여명의 학생 중 7명의 신입생이 교정보호학과에 입학하였다. 백석대 경찰학부는 1학년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전공설명회를 잠깐 하고 학생들이 바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찰학부에 들어온 학생들이 교정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다. 다행히 1학년 연말에 전과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때 교도소장 특강, 교정선배 초청 특강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이 전과를 하였고 지금까지 전공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공 과정의 1차 변경 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범죄교정학 전공학생들도 경찰행정 특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경찰행정 특채는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경찰 특유의 제도인데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들이 범죄교정학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에 미련이 남아서 교정직시험 공부에도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백석대는 교정직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교정직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주변 학우들이 모두 경찰공부를 하고 있고, 백석대의 경우 경찰행정 특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과과정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공명칭에 적어도 경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만 경찰행정 특채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청에 수차례 문의도 하였고, 경찰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교정전공 명칭에 경찰이라는 용어를 첨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선 경찰행정 특채를 보려면 경찰유사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교정보호과목들을 대폭 경찰과목으로 변경하였다. 2020년 3월에 경찰청에서 경찰행정특채 규정에 관한 행정예고가 있었는데, 전공명칭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고 학부명칭에만 경찰이 들어가면 경찰행정특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백석대 경찰학부는 학교 지침에 따라 전공간 18학점 범위내에서 타전공 이수학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경찰과목으로 개설해놓으면 학생들이 경찰학과에 가서 수강해도 45학점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예고안이 이행된 것은 2022년 하반기 시험부터였고, 실제 공고 내용은 예고안과 달리 전공명칭에 경찰이 들어가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학위 명칭에 경찰이 들어가도 경찰행정특채 지원 자격이 있도록 그 범위가 다소 확장되었다. 백석대 범죄교정학 전공은 처음부터 학위 명칭에는 경찰이 들어가 있어서 경찰행정특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두 번째 교과과정 변경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진출의 범위를 넓혀주고자 경비지도사 시험과 청소년상담사3급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과목을 조정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교정전공 과목과도 많이 중복되고 범죄자 교정교화내지 사회복지 개념과도 상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교과과목 변경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그동안 경찰행정특재를 위해 과도하게 많았던 경찰유사과목을 다소 줄이고 보호직공무원시험의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학개론 등을 추가하였다.

필자가 그간의 백석대 범죄교정학과의 명칭과 교과과정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죄교정학에 대한 수요가 너무 적어서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정직, 보호직 공무원 외에 교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백석대 범죄교정학전공 교과과정에서 교정과 밀접한 과목들은 교정학개론, 교정사회론, 범죄심리학, 교정복지론, 교정교육론, 교정상담이론, 분류심사론, 보호관찰론, 교정학연구 등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정상담이론, 청소년상담론, 이상심리, 성격심리 등 상담심리과목이 다소 많은 편이다. 교정학이 지향하는 주요 연구 대상이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수용자 인권보호, 사회복지귀를 위한 각종 치우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재사회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담심리 과목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교과과정이라고 여겨진다.

#### □ 백석대 범죄교정학전공 교과과정

구 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학부기초군	경찰학개론	3	
	범죄학개론	3	
	교정학개론	3	
핵심교과군	법학개론	3	
	상담의 이론과 실제	3	실습 1시간
	형법총론	3	
	무도	2	실습 2시간
	헌법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교정사회론	3	
	경찰행정법	3	
심화교과군	소년범죄론	3	
	형사소송법	3	
	범죄예방론	3	
	범죄심리학	3	
	피해자학	3	23년부터 사회복지학개론으로 변경
	경찰수사론	3	
	형법각론	3	
	교정복지론	3	실습 1시간

	교정상담이론	2	실습 1시간
	민간경비론	3	
응용교과군	분류심사론	2	
	형사정책	3	
	보호관찰론	2	
	경찰보안론	3	23년부터 여성범죄론으로 변경
	경찰경비법	2	23년부터 현대사회와 법으로 변경
	청소년상담론	2	실습 1시간
	교정학연구	3	
	교정교육론(캡스톤디자인)	2	실습 2시간
	이상심리	2	
	성격심리	2	실습 1시간
총 계	31개 과목	84 학점	실습 9시간

최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도 교정학전공이 신설되었으며, 그 주요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공통인정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 전공기초과목 : 교정학, 헌법, 사이버비행과 교정처우, 소년사법과 보호, 이상심리
- 전공전문과목 : 전자감독제도론(캡스톤디자인), 분류심사론, 범죄자위험성평가, 교정 복지와 상담, 교정보호관련법

## (2) 외국 대학의 교정학전공 현황

### ① 일본 류코쿠 대학(龍谷大學) 교정보호학 과정 및 센터

일본 교토에 위치한 류코쿠대학의 교정보호과정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형사정책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법학부를 중심으로 교정보호과정을 개설하여 형무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등에서 근무하는 교정직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직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교육 과정이다. 연구과목은 교정개론, 교정교육학, 교정사회학, 교정심리학, 교정의학, 성인교정처우, 보호관찰처우, 갱생보호개론, 갱생보호제도, 범죄학, 피해학 등이며, 강의 담당자는 교정관구장, 형무소장, 소년원장, 소년감별소장 등 교정관계 퇴직자, 지방갱생보호위원회 위원장, 보호관찰소장 등 갱생보호관계 퇴직자, 현직 공무원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 강의와 연습을 제공하고 있다.



### · 교정보호 센터 소개

류코쿠 대학은 교정보호 분야에서 본교의 오랜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형사정책 구상을 제안하기 위해 2001년 12월 '교정보호 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본 센터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형사정책연구를 위한 대학 부설 전문 연구기관이다. 본 센터는 일본의 교정과 보호의 전통을 토대로 경험적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적 시각에서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제언하여 국내외의 형사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센터의 다양한 연구 활동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통하여 다시 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그 범죄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온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기존의 국가 주도의 형사정책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연결하여 새로운 범죄자 처우의 구상을 구축하는 것"이며, 그 지도원리는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회복 대상자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주체성의 회복에 있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 교정보호센터 연구목표

류코쿠 대학은 1977년에 교정보호 과정을 개설하고 이후 많은 졸업생을 교정보호 분야에 배출하였다. 또한 교회사나 보호사 등 민간 자원 봉사자의 육성과 일반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또한 기관지 「교정 강좌」의 간행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실무와 학문적 가교로서 국내외의 연구자와 실무자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아왔다. 본교의 이러한 교정과 보호 분야의 오랜 실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을 기하고자 2002년도부터 문부성의 지원을 받아 "21세기 신교정 · 보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센터는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의 협력을 얻어 학제적 공동연구의 전개와 젊은 연구자의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자 및 관계 단체와의 네트워크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국가의 교정 보호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언도 하고 있다.

### · 교정보호센터의 주요 연구과제

참고로 류코쿠대학 교정보호센터의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교정·보호 입법의 현황
- 교정·보호 관련 제반 법제와 실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구체적인 정책 제언

- 현대 사회에서 형벌의 기능
- 범죄자와 비행소년의 처우 내지 형사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형벌 이론의 현대 변용을 비교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교정·보호의 통계
- 범죄통계 방법과 도구를 검토하고 피해자 의식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실증연구 실시
- 교정·보호의 처우 평가
- 교정 처우와 심리에 관한 연구
- 교정처우 대상자 및 교정시설 직원과 외부 자원봉사자 등 처우 관여자가 교정처우 내용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지 검토 연구
- 범죄자 처우와 민간 기업
- 민영화 방식에 의한 새로운 교정시설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참가 기업의 역할의 실태 조사·검증
- 발달 장애자와 비행 소년에 대한 처우 및 그에 관한 기본적인 실천적인 처우규칙 수립
- 교정시설에서의 종교 활동
- 수용자와 교정시설 직원, 외부 자원봉사자 등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종교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연구 및 실태 조사
- 약물 의존 범죄자의 사회복귀
- 지역 사회와 갱생 보호
- 사회봉사명령과 집중보호관찰 등에 관한 규범적, 비교법적,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안 수립
- 교정·보호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 범죄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교정 및 보호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 및 설명서 작성
- 개정 감옥법 및 실무의 변화
- 감옥법 개정후 처우 현장에서의 실무의 변화와 운용상의 과제 검토
- 교정·보호 관련 정보의 수집
- 잡지 「교정 강좌」 편집, 「연구 연보」 발간, 교정보호관련 총서 출판, 연구 보고서의 작성, 국제 교류 및 심포지엄 개최

## ②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부(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Department) 교과과목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부는 전통적으로 교정학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였는데, 최근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형사사법 체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범죄, 정의 및 사회적 전환제도(CRIME, JUSTICE AND SOCIAL DIVERSITY)
- 범죄이론 개요(INTRODUCTION TO CRIMINOLOGICAL THEORY)
- 형사사법행정 개요(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 미국 경찰(POLICING IN AMERICA)
- 형법 개요(INTRODUCTION TO CRIMINAL LAW)
- 형사사법연구 개요(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RESEARCH)
- 형사사법통계 개요(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기소와 판결(PROSECUTION AND ADJUDICATION)
- 범죄학과 형사사법의 특별 주제(SPECIAL TOPIC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비교 범죄학 및 형사사법(COMPARATIV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마약 남용과 형사사법체계(DRUG ABUS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법과 사회통제(LAW AND SOCIAL CONTROL)
-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 교정학 개론(INTRODUCTION TO CORRECTIONS)
- 사회내 교정(CORRECTIONS IN THE COMMUNITY)
- 범죄학 및 형사사법 독해(READING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심리학과 법(PSYCHOLOGY AND LAW)
- 형사절차(CRIMINAL PROCEDURE)
- 지역사회경찰(POLICING COMMUNITIES)

- 위험 평가 및 형사사법 예측(RISK ASSESSMENT AND PREDICTION IN CRIMINAL JUSTICE)
- 범죄와 비행의 예방(PREVENTION OF CRIME AND DELINQUENCY)
- 범죄자 폭력(CRIMINAL VIOLENCE)
- 지역사회, 장소, 범죄(COMMUNITIES, PLACES, AND CRIME)
- 여성, 범죄, 정의(WOMEN, CRIME, AND JUSTICE)
-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
- 범죄 피해자(VICTIMS OF CRIME)
-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
- 대량 수용 및 부수적 결과(MASS INCARCERATION AND COLLATERAL CONSEQUENCES)
- 효과적인 교정집행(EFFECTIVE CORRECTIONAL PRACTICES)
- 범죄학 및 형사사법 자율연구(INDEPENDENT STUDY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범죄학 및 형사사법의 현재 이슈(CONTEMPORARY ISSU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인턴십 향상 과정(ADVANCED INTERNSHIP)

③ 미국 샘휴스턴 대학(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부(College of Criminal Justice)

샘휴스턴 대학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가까운 헨츠빌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헨츠빌은 교정시설이 7개나 있을 정도로 교정 타운이며, 따라서 샘휴스턴 대학은 일찍이 교정행정 내지 형사사법이 발전한 대학이다. 즉 샘휴스턴 대학의 형사사법학부(College of Criminal Justice)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형사사법(교정보호) 대학으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즉, 형사 사법과 교정보호, 피해자 연구, 형법 및 범죄학 연구 과정을 두고 우수한 교수진이 지도하고 있으며, 학부 내에 일반법원의 법정과 똑같은 법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서관, 연구실 등 훌륭한 학습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고 있어 교정보호, 형사사법, 범죄학 분야에 있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 교과 과정(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 Criminology)
  - 형사사법 입문(Introduction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범죄학(Criminology)
  - 형법 기본(Fundamentals of Criminal Law)
  - 교정 제도 및 실제(Correctional Systems & Practices)
  - 경찰 제도 및 실제(Police Systems & Practices)
    - 근대철학(Modern Philosophy)
    - 텍사스주 정부(Texas Government)
    - 사회정책(Social Policy)
  - 피해자학(Victimology)
    - 문화간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 갈등, 협상 및 해결(Conflict, Negotiation & Resolution)
    - 기만적 소통(Deceptive Communication)
    - 경제학 개요(Introduction to Economics)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심리학 개론(Introduction to Psychology)
    -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 심리학과 법(Psychology & the Law)
    - 사회학의 원리(Principles Of Sociology)
    -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 연구방법 개요(Introduction to Methods Of Research)
  - 형사사법 및 다양한 전환제도(Criminal Justice & Social Diversity)
  
- 그 외에도 형법 실무, 법집행의 철학과 역사, 법과 사회, 과학수사 기법, 법원과 형사절차, 미국 형사사법제도, 특별 범죄자 및 특별 처우, 성별 및 범죄, 고령화, 범죄 및 피해자, 소년비행 및 소년형사사법, 피해자 구제방안, 국제 형사사법제도 비교, 화이트칼라 범죄, 폭력 범죄자, 성범죄자, 테러와 보안, 교정의 법적 측면, 인간의 행동 이해, 아동 학대 및 방치, 외상(trauma)과 위기 개입, 범죄와 미디어, 약물사용 및 남용, 사이버 범죄, 전문성 및 형사사법 윤리, 교정행정 전략, 국제적 조직범죄, 범죄자 면접 및 상담기법, 교정시설 인턴 실무, 형사사법 자율적 연구,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특별 주제, 사회

일탈행위, 가정폭력, 경찰행정 전략, 형사사법 및 다양한 전환제도,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문제 분석, 여성에 대한 폭력, 법집행에 있어서 헌법상 문제점, 피해자 연구에 있어서 문제점 분석 등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 5) 교정관련 공공연구소 설치

교정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연구소 또는 공공연구소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교정학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교정본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정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교정에 관한 정책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설 기구가 아니고 필요시에만 임시로 설치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는 과거 치안연구소가 있었고, 현재는 경찰대 내에 치안정책연구소가 설치되어 경찰관련 정책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법무성 소속 법무종합연구소에 교정연구팀이 있고, 교정협회에서도 교정관련 각종 전문서적을 발간과 함께 교정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직 형무관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교정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무부 내에 연방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설치되어 교정관련 각종 통계작성 등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 6) 교정관련 전문 자격증 개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자 교정교화, 사회복귀,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교정교육이나 교정상담 부문에서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교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교정기관에서의 교육, 상담, 심리치료,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이 통일적인 표준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용자 처우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교정본부 차원에서의 표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 학과교육, 종교활동, 직업훈련, 상담,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소정의 교육과 경험을 갖추어 해당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자격증 발급은 대부분의 다른 자격증과 같이 교정관련 학회 차원에서 주관부서인 법무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교정포럼에서는 산하조직에 교정교육훈련원을 설치하고, 교정관련 전문 자격증 과정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정교육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이 발급되어 왔는데, 이를 국가 자격증으로 격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만약 교정분야에 이러

한 국가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교정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교정현장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교정처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격증 발급 과정에는 교정학은 물론, 교정심리학, 교정상담학, 교정교육학 등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4. 백석대 범죄교정학전공 학생 설문조사

교정학전공과 관련하여 백석대 범죄교정학전공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범죄교정학 전공학생 80명(휴학생 포함)과 복수전공학생 40명 등 총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 11. 2.부터 11.5.까지 하였으며, 네이버오피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대상자 120명중 74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여 61.7%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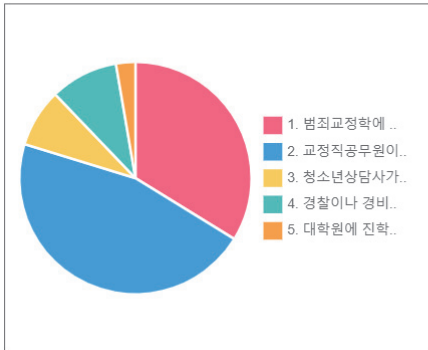
첫 번째 질문은 교정학전공 명칭과 관련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학과의 명칭을 물었는데, 범죄교정학과(62.2%), 교정보호학과(14.9%), 교정보안학과(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정보호학과와 교정보안학과의 같은 비율로 선호도 2위를 보였다.

1. 교정학 전공 명칭과 관련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학과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범죄교정학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교정직공무원이나 보호직공무원이 되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5.9%), 다음 범죄교정학에 흥미가 있어서(33.8%)로 나타났으며,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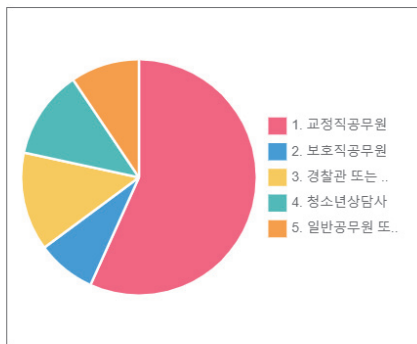
2. 범죄교정학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범죄교정학에 흥미가 있어서	25	33.8%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교정직공무원이나 보호직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34	45.9%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청소년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6	8.1%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경찰이나 경비지도사가 되고 싶어서	7	9.5%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범죄교정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2	2.7%				

세 번째 질문은 졸업 후 진출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 물었는데, 교정직공무원(56.8%), 경찰관 또는 경비지도사(13.5%), 청소년상담사(12.2%) 순으로 나타났다. 교정학을 전공하면서도 경찰관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직공무원에 대한 선호도(8.1%)는 의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졸업 후 진출하고 싶은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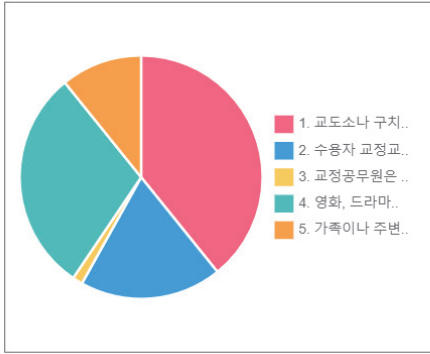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교정직공무원	42	56.8%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보호직공무원	6	8.1%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경찰관 또는 경비지도사	10	13.5%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청소년상담사	9	12.2%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일반공무원 또는 회사원	7	9.5%				

네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39.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이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조명되어서(29.7%)로 높게 나타나, 역시 학생들도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 교정교화나 사회복귀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18.9%)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를 변화시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하는 업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야근을 하는 것(1.4%)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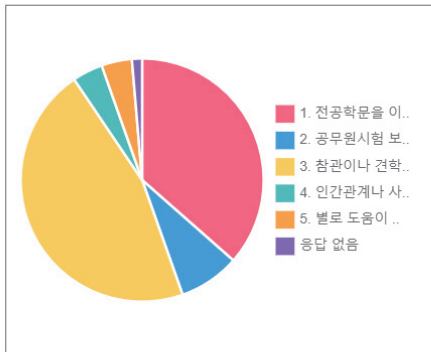
4. 일반적으로 교정공무원은 그 평가가 높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29	39.2%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수용자 교정교화나 사회복귀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	14	18.9%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교정공무원은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	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조명되어서	22	29.7%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가족이나 주변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	8	10.8%				

다섯 번째는 범죄교정학전공 수업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것에 대하여 물었는데, 참관이나 견학을 통해 교정현장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45.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공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36.5%)이 그 뒤를 이음으로써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이한 것은 (교정)공무원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하여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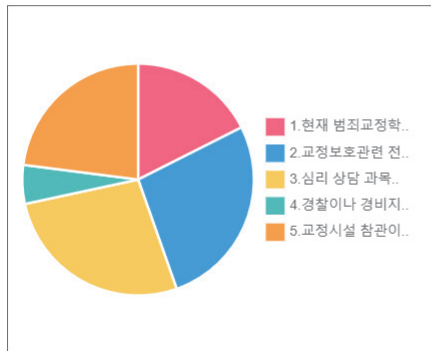
5. 범죄교정학전공 수업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전공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7	36.5%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공무원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었거나 될 것 같다	6	8.1%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참관이나 견학을 통해 교정현장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	34	45.9%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	4.1%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별로 도움이 된 것이 없다	3	4.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1.4%				

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은 앞으로 범죄교정학전공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교정 보호관련 과목(27.%)과 심리상담관련 과목(27.0%)을 더 늘려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똑같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이 경찰과목보다는 범죄교정학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과목의 개설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범죄교정학전공 교과과정이 괜찮다는 의견은 17.6%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교과과정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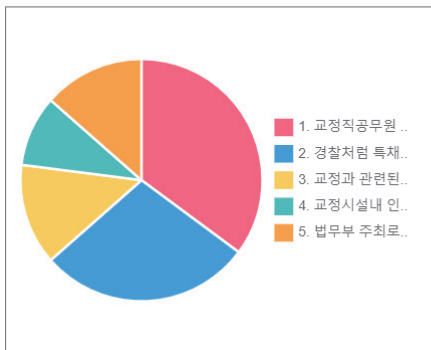
6. 앞으로 범죄교정학전공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현재 범죄교정학 전공 교과과정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13	17.6%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2.교정보호관련 전공과목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	20	2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3.심리 상담 과목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	20	2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4.경찰이나 경비지도사 과목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	4	5.4%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5.교정시설 참관이나 견학, 특강 프로그램 등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	17	23%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은, 법무부 교정당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면 좋겠다(35.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처업 특채시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28.4%로 높게 나타났다.

7. 법무부 교정당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 교정직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면 좋겠다.	26	35.1%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2. 경찰처업 특채시험이 있으면 좋겠다.	21	28.4%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3. 교정과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10	13.5%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4. 교정시설 내 인턴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7	9.5%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5. 법무부 주최로 대학생들을 위한 교정 관련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10	13.5%			

## 5. 교정교육

마쓰모토(松本)의 교정용어사전에서는 교정교육에 대하여, 대상자의 범죄성을 개선하여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을 제거하고 장점을 고양(高揚)시켜 대상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로는 잘못된 행동을 정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며, 협의로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정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교육·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의 처우를 말하며, 교도소 등 교정시설 등의 특별한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교정교육의 이념은 형벌의 목적이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개개인의 범죄적 반사회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형적인 행형이념이 주장된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형집행법이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6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처우의 하나로서 교정학이 관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분야이다. 현재 우리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학과교육

교정교육 중 학과교육은 구금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수용자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초등과정에서부터 중등, 고등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반을 편성 운영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학학위나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교정시설 내에서 이수하여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사회 및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2) 인성교육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종전의 정신교육에서 발전한 것이다. 수용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수용자의 건전한 민주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개과천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는 새마을 정신교육을 계승한 형태로 소내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2008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수용자 인성교육”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 회복, 도덕성 회복,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 등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 실시하여 왔다. 이후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심화시켜 2015년부터는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기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70~12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수형자 종교활동

종교는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마음에 평정을 갖게 하여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6세기 근대 감옥의 태동은 ‘기도와 노동’을 중시했던 수도원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수용자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옥 내에서 회오반성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감옥개량가로서 감옥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하워드(Howard)는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강조하여 감옥 내에 성경을 비치하도록 하고 독거실에 수용하여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하워드의 사상은 미국 감옥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790년 펜실베이니아 주 월넛감옥에서 처음으로 독거제가 실시되었고, 각 수용자에게 기독교에 바탕을 둔 종교활동이 권장되었다.

수형자의 종교 활동은 이러한 초창기를 거쳐 응보모델, 치료모델, 정의모델, 재통합모델 및 가장 최근의 회복적 사법모델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교화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의 종파에 따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파별로 종교집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부의 종교위원들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종교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 4)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이는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칫 소

원해 질 수 있는 가족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수용자에게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나 소년수,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다.

## 5)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교도작업이란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형기 중 부과하는 일체의 작업으로써 형법 제67조에 따라 징역형의 수형자에게 강제되는 정역을 말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의무적으로 정역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65조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교도작업의 본질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대부분 노동을 싫어하거나 태만히 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교도소에서 작업을 통하여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노동의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사회복귀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과거에는 교도작업을 범죄자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강제노동의 의미로 파악하였지만, 최근에는 교도작업도 사회복귀를 위해 준비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교정교육과 그 목적에 있어 큰 차이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수용자들이 출소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취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 및 기능을 가르치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 31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지정하고,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 용접, 조리 분야 등 74개 직종에 달하는 직업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고급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변화에 발맞춰 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 3D 프린팅, 컴퓨터응용가공 등 첨단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가 형기 동안 작업, 직업훈련,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소 후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각 교정시설에서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용자 취업·창업 교육 등 수용자의 사회복귀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6) 기타 교정교육 관련 활동

### ① TV시청 및 라디오청취, 신문등 열람

모든 수용자 거실에 TV를 설치하여 사회의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부터는 전문인력과 방송장비를 갖춘 통합교화방송센터를 개국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동일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은 일반, 여성, 교육채널 등 시청수용자의 특성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정뉴스 등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라디오는 매일 오전, 정오, 취침 시간대로 나뉘어 송출하고 있고, 신문·도서·잡지 등은 본인의 영치금을 활용하여 구독할 수 있다.

### ② 음악, 미술등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시행

2005년 8월부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창, 미술, 웃음, 원예, 요가, 연극 등 수용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아존중심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 ③ 문예, 창작활동

수형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예활동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여 제작한 그림, 서예, 공예 등의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전국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굳은 의지와 집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 7) 소년원에서의 인성교육

본래 교정교육의 개념은 소년원에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발전해왔다. 참고로 소년원에서의 인성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인권 중심의 생활지도를 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의 원인 제거와 동시에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알맞은 진로 개척 능력과 더불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된



다. 이들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규율에 따라 생활을 하며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소년원 단계별 교육내용은 소년원 입원에서 출원까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소년원은 사법적인 기능 보다는 교육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생활지도, 인성교육, 특성화 교육,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처우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년들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추후 사회에 나갔을 때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인격도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

법무부에서 수립한 「2020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자료를 바탕으로 소년원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단계 신입사 교육은 소년원 생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상담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교육 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지정하며,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2단계 기본교육은 크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교육,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고,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교과교육은 「초·중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며, 교과(보통교과 및 특성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과는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뉘며 기본적인 국어, 사회, 영어, 수학,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 기본적인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특성화 교과는 인성, 컴퓨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되며, 활동영역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하되, 특별활동의 경우 전체 학생이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운영된다. 주요활동으로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한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독후감·백일장 대회, 체육대회, 문화예술제, 영화감상 등 기타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소년원생들은 교과교육을 통해 검정고시, 진학, 자격취득(컴퓨터, 한자 등), 전·편입학, 졸업장을 취득하게 된다. 셋째, 의료·재활교육은 약물중독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의

료·재활교육 및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통해 소년원생의 기초적인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생의 건강 회복 및 체계적인 질병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은 지성과 인성이 조화된 인격형성 및 비행성 교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유관부처의 협력 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예·체능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3단계 사회복귀교육은 출원을 앞둔 보호소년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출원 후 준수사항 등을 교육한다. 운영 기간은 출원 예정일 이전 10일(공휴일 포함) 이내이며, 청소년 자립생활관·청소년창업비전센터(한국소년보호협회)와 연계, 멘토링 및 취업 후견인을 통한 진로지도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년원생들이 퇴원 후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6. 상담치료(심리치료)

### 1) 교정상담의 의의

교정상담이란 용어는 오늘날에도 사회 각 부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용어는 아니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00년대에는 상담을 성직자들이 담당했고, 그 다음에는 보호관찰관이, 그리고는 가석방 담당자가 담당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및 사회사업가 등이 이 분야에 참여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전 이후 교정 분야에 상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정상담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교정상담 분야가 크게 발전한 시기는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던 1960~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상담자와 보안담당자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상담자란 용어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상담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학문적 및 경험적 자격을 갖춘 봉사자들도 존재하지만 주로 종교계 종사자들이 많고 공식적인 역할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이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2) 심리치료의 의의

심리치료란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양



한 심리적 문제들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치료방법도 약물이나 환경조정에 의하지 않고 치료자와 환자와의 면담에 의한 것이 주가 된다. 그러나 최면요법이나 심리극, 행동요법 등 특수한 이론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넓게 심리치료라고 한다.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심리치료는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류, 알코올, 상습폭력, 도박, 정신질환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크게 '전문상담'과 '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심리치료업무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치료과는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2020년 현재 전국 교정시설 중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심리치료과가 없는 대부분은 보안과 심리치료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다양한 범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교육과 관리를 위해 향후 전국 교정시설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3)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교정시설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출소 후 2주 내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건 등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및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등으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2009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성범죄자의 교정시설내 치료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0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HAGSOR)를 개발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10. 4. 15)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가 제도화되어 교정시설 수용 기간 중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처음으로 개원되었다.

2014년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구분 기준을 재범위험성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아동성폭력사

범과 일반성폭력사범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던 구분을 없애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수용자에 개별적 특성에 따라 수준별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Static-99과 HAGSOR를 사용하여 개별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로 나뉘어 운영되는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이때 완성되었다. 그 후 2016년 9월에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었으며 2016년 11월 교정시설 내에 심리치료팀이 설치되어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되었다.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에 의하면,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의 관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②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발
- ③ 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
- ④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 ⑤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⑥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⑦ 약물·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⑧ 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수형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히 어린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성폭력사범 및 이수명령 병과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수용기간 중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신종 성범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과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심리치료센터는 전국에 7개(서울남부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밀양구치소, 목포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있으며, 심리치료과가 설치된 교정기관은 5개 기관이다.

#### 4)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심리치료는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크게 ‘전문상담’과 ‘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상이 되

는 범죄는 ① 성폭력 범죄 ② 아동학대 범죄 ③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 ④ 상습폭력·도박이나 그 밖의 행위중독관련 범죄 ⑤ 동기없는 범죄 ⑥ 정신질환관련 범죄 ⑦ 그 밖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상습규율위반 등)이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목적은 성폭력사범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왜곡된 성의식 수정, 재범 유발원인 분석 및 대처능력 향상, 피해자 공감 및 사건에 대한 책임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대처능력 개발, 자기관리 능력 향상, 좋은 삶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월 내외(주 1-2회 진행)의 기간 동안 전국 각 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및 사후평가, 개별면담이 포함되어 있다. 집중과정은 총 2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집중과정이 설치된 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기본과정보다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별 수행자가 제출하는 과제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총 3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동안 5개의 심리치료센터에서 진행된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주 5회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주 3회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주 2회는 그 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심화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 사건의 발생과정의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자기 조절과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사범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기본·집중·심화 과정 이외에 추가적인 2개의 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에서 범죄내용이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한 특별과정을 2019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출소 1년 이내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150시간으로 운영되며, 6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집단상담과 함께 깊이 있는 개별치료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효과 유지 및 체계적·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유지과정을 개발, 시범운영을 통하여 유지과정에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심화과정 수료자 중에 잔형기 1년 이내의 성폭력사범이 참여하며 20시간으로 운영된다.

## 7. 결어

본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교정학의 정체성 문제였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 수용자 인권보호, 사회복귀 및 재방방지를 위한 각종 처우 등을 교정학의 범위로 하여 그 정체성을 살려나가길 바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이 교정교육, 교정상담 등 사회복귀와 관련된 처우들인데, 이러한 처우는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정학은 이러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정학을 영어로 이해할 때, Corrections 보다는 Correctional Science 로 간주하여 교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이나 과학을 반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면 교정학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좀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금융명, 교정학, 박영사, 2021.  
 이백철, 교정학, 교육과학사, 2020.  
 허주옥, 교정학, 박영사, 2013.  
 김경태,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9호, 2010.  
 鴨下・松本, 교정용어사전, 2006.  
 경기대, 동국대, 백석대 홈페이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샘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대학 홈페이지  
 서던 일리노이 주립대 형사사법대학 홈페이지  
 일본 류코쿠대학 홈페이지



# 교정교육의 발전과정

유 주 영

(경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교정교육의 발전과정

경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유주영

\* 이 발표자료는 유주영(2021),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NTENTS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 1) 전옥서 시대: 인본주의 처벌
  - 2) 1910년-1945년: 형무소로 명칭 변경과 신체형 처벌
  - 3) 1946년-1961년: 혼란 속에서의 교정 조직 정비
  - 4) 1962년-1979년: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교정 이념의 도입
  - 5) 1980년-1992년: 수용자 통제의 강화
  - 6) 1993년-2006년: 수용자 학습권의 확대
  - 7) 2007년-2013년: 교정예의 치료적 관점의 도입
  - 8) 2014년-현재: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
- 5 논의 및 결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 목적

**교정교육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으로서 교정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연구 문제

1. 시대마다 교도소의 운영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용자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2. 시대마다 수용자 변화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교정교육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II. 이론적 배경

4

1. 교정교육의 개념

2. 학습자로서 수용자

- 가. 성인학습의 개념과 이론
- 나. 수용자 학습권 논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의 학교와 아동, 청소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 생애 중심,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도입된 개념
- 생애주기에 따라 학령 전 교육, 학교교육, 청소년 교육, 성인교육, 노년교육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면서 가정, 학교, 직업세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육(강대중, 2019)
- **언제, 어디서든지** 평생교육은 일어날 수 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 '평생교육'으로서 교정교육이란 무엇인가?

- 교정교육: 수용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교육(송태호, 1995; 남상철, 1998; Davis et al, 2014)
- 평생교육: 인간의 전 생애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육(한승희, 2010; 강대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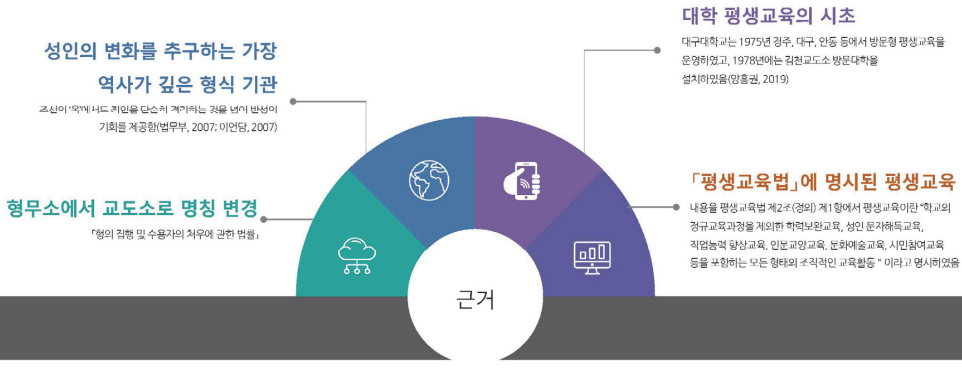


교정교육은 범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 평생교육으로서 교정교육



III. 연구방법

8

### 계보학 연구 방법

- 담론의 생산과 통제, 유통을 분석하는 방법
-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되어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방법
- 현재에 주목한 방법
-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교도소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기능이 변화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III. 연구방법

9

자료수집①: 문헌자료

자료유형	주요 발행기관
신문기사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기독교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대한민국 교정사, 교도소 100년사 등	법무부
연속 간행물(『새길』, 『교정』 등)	법무부
대통령 담화문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범죄 통계 자료, 교도소 현황 등	법무부
교정교육 운영 지침 및 운영 계획안 등	법무부
각종 역사 자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교정교육 강의 자료	인권 연대 등
교정교육 운영 결과 보고	각 교도소
교정교육 현황 분석, 교정교육 효과 분석, 수용자 처우 등	형사정책연구원
교도관 및 출소자 수필, 자서전	각 출판사
범죄 통계 자료	통계청
교정시설 문화예술 교육 운영 방안 등	문화관광부
학술 논문, 포럼, 세미나 등	각 학회
교정교육 운영 보고서 등	각 시도 교육정책국 등

III. 연구방법

10

자료수집②: 면담

- 참여자: 총 14명
- 면담시간: 2시간~4시간

번호	이름	나이	성별	구분	면담시간
1	김동석	50대	남	교정공무원	4시간
2	박건우	50대	남	교정공무원	4시간
3	김지민	50대	여	교정공무원	4시간
4	최진환	50대	남	교정공무원	4시간
5	이기훈	50대	남	교정공무원	4시간
6	김명진	60대	남	교정공무원	4시간
7	윤태원	60대	남	관상어협회장	2시간
8	정태영	30대	남	교정공무원	2시간
9	이원진(민영교)	40대	남	교정공무원	4시간
10	박영훈(민영교)	60대	남	전 교정공무원	3시간
11	전현수(민영교)	50대	남	교정공무원	3시간
12	박현종	60대	남	출소자	2시간
13	이정훈	40대	남	출소자	2시간
14	박상원	40대	여	출소자	2시간

III. 연구방법

11

연구의 분석 틀

주요 시대 구분 (1910 - 2021)

1) 감옥의 운영과 전개	시대마다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건 등에 대한 내용
2) 수용자의 관리	시대마다 수용자를 관리했던 방식
3) 수용자의 변화	시대마다 교도소 수용자의 변화의 내용과 의미
4) 교육	시대마다 교정교육의 내용과 의미

IV. 연구결과

12

1. 전옥서 시대: 인본주의 처벌

형벌: 배형(笞刑)이나 장형(杖刑) 등 신체형이 부과됨

인본주의 사상

우리나라 전통옥이 **원형**이었던 이유

: "죄인이 교정교화가 되도록 옥 내에서 모란 것을 보지 않도록"



- 1909년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의해 감옥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게 박탈당함.



IV. 연구결과	
<p><b>2. 1910년-1945년: 형무소로 명칭 변경과 신체형 처벌</b></p> <p>형무소의 운영과 전개: 형무소로 명칭 변경과 항일 운동가 투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3년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刑務所)로 변경됨</li> <li>조선인 사상범은 전체 수감자의 87.73%(박경목, 2016)</li> <li>1925년 「치안유지법」 공포하여 조선인 통제 강화</li> </ul> <p>수용자의 관리: 신체형 처벌과 수형기록 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제강점기 형무소는 사형집행소(김병화, 1976)</li> <li>수형기록카드, 소표(小票), 동작시한표</li> </ul> <p>수용자의 변화: 황국신민으로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은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고자 함</li> </ul> <p>교육: 황국신민화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국신민의 도(道)를 주제로 함</li> <li>1924년부터 수감자용 잡지 「도(道)」 배포함</li> </ul>	<p><b>3. 1946년-1961년: 혼란 속에서의 교정 조직 정비</b></p> <p>형무소의 운영과 전개: 수용자 인구 증가와 행형법의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형무소 인원 급증</li> <li>1948년 법무부 형정국 설치</li> <li>1950년 「행형법」 제정</li> </ul> <p>수용자의 관리: 사상범 관리 강화와 모범수형자의 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공 사상 통제</li> <li>지도원 제도 운영</li> </ul> <p>수용자의 변화: 전향과 비문해로부터의 탈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익사상으로부터의 전향을 강조</li> <li>문맹퇴치운동의 영향으로 한글을 아는 것이 강조됨</li> </ul> <p>교육: 한글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맹퇴치운동의 영향으로 수용자에게 한글교육 제공</li> <li>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함</li> </ul>

IV. 연구결과	
<p><b>4. 1962년-1979년: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교정 이념 도입</b></p> <p>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부조리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1년 형무소(刑務所)에서 교도소(矯導所)로 변경됨</li> <li>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강조</li> <li>유신: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강조</li> </ul> <p>수용자의 관리: 분류처우와 규율의 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4년 「수형자분류처우방안」 마련</li> <li>1971년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정」 제정</li> </ul> <p>수용자의 변화: 반공정신을 지닌 명량한 노동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공정신을 지닌 자</li> <li>‘명량’ 연표 확산과 함께 근면과 성실 등을 강조</li> </ul> <p>교육: 1인 1기 교육과 학습의 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1기 강조되며 기술교육 강화</li> <li>1975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 사회에 알려지자 쓸 수 있는 권리 강하게 통제</li> </ul>	<p><b>5. 1980년-1992년: 수용자 통제의 강화</b></p> <p>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탈주 사건과 ‘범죄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3년 조세형 탈주사건</li> <li>1988년 지강헌 사건</li> <li>“감방 동료로부터 다양한 범죄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li> </ul> <p>수용자의 관리: 사회보호법과 특별권력관계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 「사회보호법」 제정</li> <li>명령과 복종의 특별 관계가 성립</li> </ul> <p>수용자의 변화: 불량한 태도의 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대) 실시</li> </ul> <p>교육: 순화교육과 정신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계획」 발표</li> <li>1987년 정신교육 실시</li> </ul>

IV. 연구결과

15

**6. 1993년-2006년: 수용자 학습권의 확대**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가석방 확대와 민영교도소 설치법 마련

-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과밀수용
- 가석방 지침 새롭게 마련
- 1999년 민영교도소 설치 법률 마련

**수용자의 관리:** 특정 수용자 선발, 사회보호법 폐지

- 과실범 전담교도소, 특별관리대상 수용자 탄생
-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수용자의 변화:** 규율 준수자로의 변화

- 처우가 확대되지만 일부 수용자에게만 제공
- 규율을 잘 준수하여 점수를 잘 받아야 처우 기회 많음

**교육:** 정신교육 축소, 고등교육, 문화예술교육 확대

- 2002년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 개정
- 1995년부터 독학학위제 실시, 2001년부터 전문대학 위탁 교육 실시, 2004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 실시
- 2003년부터 문화예술교육 본격적 제공

**7. 2007년-2013년: 교정에의 치료적 관점의 도입**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교정본부로 승격과 조두순 사건

- 2007년 법무부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됨
- 2008년 조두순 사건
- 성폭력법 관련 법 제정, 홍보 영상 등 제작 배포

**수용자의 관리:** 위험 범죄자 관리와 마음 달래기

- 재범위험성 평가 지표 만들어 위험 범죄자를 분류
- 2002년 성모공개 청구제도 도입하여 고소, 고발 증가로 교도관은 수용자를 달래는 방식으로 관리함

**수용자의 변화:** 정신이 치료된 자로의 변화

-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2011년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교육:** 심리상담, 인문교육, 직업훈련의 확대

- 성폭력 사범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
- 인문학 열풍으로 인문 교육 확대
- 출소자와 취업처를 연계하는 직업훈련 확대

IV. 연구결과

16

**8. 2014년-현재: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범죄에 대한 불안감 상승과 과밀수용

-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공감대 확대
- 범죄 피해 불안감 높은 수준

**수용자의 관리:** 분류전담센터의 확대와 민간 자원봉사자의 참여

- 2016년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정
-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임 후, 「교정교화 종합대책」 발표에서 수용자 교정교화에 민간 자원봉사자 참여 강조

**수용자의 변화:** '위험관리수준'이 낮은 자로의 변화

- 위험관리수준: 범죄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에 따라 평가
-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반영

**교육:** 집중인성교육

-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부터 "벤치마킹"
- 2015년부터 전국 교정시설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함
- 집중인성교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축소됨



### 우연적 사고에서부터 촉발된 교정교육의 변화



### 우연적 사고에서부터 촉발된 교정교육의 변화

#### 우연이란?

- 철학사적으로 우연은 고대부터 Aristotle와 그 이전 사상가에 의해 논의되었음. 우연보다는 필연이 지배적이었던 고대의 사상적 경향은 중세에도 이어졌음. 이후 Hegel에 의해 인과론이 부정되면서 재발견되었고, Kant에 의해 우연 개념이 확대되었음
- Kant는 모든 사물은 전적으로 우연하다고 주장하였음(최성철, 2017)



## 우연적 사고에서부터 촉발된 교정교육의 변화

### 교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 학습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교정교육 변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교정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용자를 학습자로 인식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또한, 학습자로서 수용자가 어떤 교육 혹은 학습을 원하는지, 이들이 교정교육에 어떠한 동기로 참여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봄


## 교정교육의 문제점

1)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 집중인성교육 '인성' 은 생애 전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변화할 수 있지만 매우 단기간 집중적 교육을 제공함

-> 단기간에 집중, 교육 이수 후 후속 교육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수용자는 교정교육을 일정 시간만 이수하면 끝남. 교도소 내에서의 인종으로만 끝남

 **수용자의 생애의 학습 경로를 고려하여 출소 후에도 학습을 지속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정교육의 문제점

- 2)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하여 법무부, 국민의 교정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 3) 교정교육 **예산 부족**
  - 1990년대 초반까지 교정교육 예산은 전체 교정행정 예산의 0.98%에 불과했음(김상희, 이민순, 윤영철, 1992)
  - 2018년 전국 교도소의 예산 1조 5536억원 중 집중인성교육과 학과교육 심리치료 등 예산은 0.47%(73억5800만원)에 불과함(중앙일보. 2018. 8. 8.)
  
- 4) **평생교육/ 교정교육상담사 등 전문가**의 적극적 양성 부족
  - 교정교육 상담사 등 전문가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함(최영신 외, 2016)

### 교정교육의 발전방향

- 교정교육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 강조되어** 옴
- 가장 최근에는 UNESCO가 2020년 **‘포용과 교육: 모두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All Means All)’**이라는 책자에서 교정교육에 참여한 수용자는 참여하지 않는 자보다 재범 가능성이 13%p 낮다고 언급하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21년 UNESCO는 ‘A prisoner’s right to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함

### 교정교육의 발전방향

- **교도소를 대학으로 인가**받은 사례: San Quentin State Prison
- 2020년 Mount Tamalpais College로 명칭 변경
- 2020년 1월 Mount Tamalpais College은 ACCJC (Accredi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의 인증 후보로 선정되어 교도소 최초로 교육기관이 됨(Mount Tamalpais College 홈페이지)
- 교도소 수용자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Patten University 이름으로 전문대학 학위를 줌**
-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Pokket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출소 후 삶을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코딩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출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 제도 등을 많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교정교육의 발전방향

- **교정교육, 교정상담 등의 전문가의 적극적 양성 필요**
- 수용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보다 출소 후 재사회화에 도움 가능
- 수용자의 **전 생애 과정에서의 학습 관리** (출소 후에도 지속적 학습 지원)
- 분절되고 파편적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 교육**을 시행하여 수용자의 신체, 정서 등 **발달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교도소에 대한 의미의 전환 : 단절의 장소에서 교정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장소로 변화될 가능성 확대**

감사합니다.



# 교정상담의 현황 및 과제

신 기 숙

(전 법무부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심리학 박사)





## 교정상담의 현황과 과제

### 신기숙 (심리학 박사)

(전)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현)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drshinks@gmail.com

## 목차

- 국내 교정상담 역사
  - 교정 & 상담
  - 교정 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 교정상담 현황
  - 조직
  - 프로그램
  - 상담전문인력
- 제기되는 과제



## 국내 교정상담 역사

- 교정

- 矯正

- ✓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고침
- ✓ 수용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일(위키백과)

- Correction: 인간의 성격 교정

- 범죄자의 일탈된 성격, 행동 등을 바로 잡아 **재사회화**(이연담, 2016), 사회에서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 **재통합**(이윤호, 2007)

한 교도관이 교도소 수용자들이 있는 방에 가서는 교도봉으로 철창을 강하게 수차례 내려친다.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 폭력과 육설은 기본이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동안 소비되던 교도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실제로도 그럴까. 교도관으로 일컬어지는 **교정 직류 공무원들**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교도소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오히려 이들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교정(矯正)의 사전적 정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



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202501>

## 국내 교정상담 역사\_교정 & 상담

- 교도관의 직무 「형의집행및수용자치우에관한법률」

-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제25조 1항).
-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7조).

※ 교정본부는 수용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곳입니다. [출처: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4/subview.do>]

## 국내 교정상담 역사\_교정 & 상담

### ● 상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적인 절차

#### ① 상담자

- 전문적 자질: 상담이론과 방법에 관한 이해, 상담실습 및 훈련 경험

- 인간적 자질: 본보기, 치료적 도구

✓ “상담자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내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만 내담자를 성장시킬 수 있다.”

✓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 진솔성

#### ② 내담자: 상황, 성격적인 원인, 정신증/신경증 등으로 도움을 요청

#### ③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간의 **관계**

## 국내 교정상담 역사\_교정 &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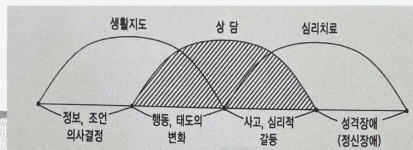
### ● 생활지도(guidance)

#### ●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는 것

✓ “개인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생활목표를 수행하고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조화되면서 적응하여 원만하고 성숙한 자기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네이버 상담학 사전).

✓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나무위키)

### ● 상담과 심리치료



출처: 이연담(2016), 신경향 교정학

## 국내 교정상담 역사\_교정 &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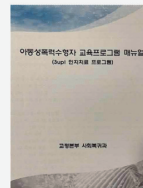
### ● 교정상담

-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 범죄자를 돕는 것
  - ✓ 교정시설에서 범죄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사회인으로 생활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상담(네이버 상담학 사전)
  - ✓ 범죄자 상담(치료)의 일차적 목적은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켜 내적 변화를 유도/사회로의 재통합, 이차적 목적은 사회안전(윤정숙 등, 2014)
- 미래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기회를 창조하는 것

## 국내 교정상담 역사\_치료 프로그램

### ●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 2006년 성범죄자 대상 20시간 인성교육, 외부강사 중심
  -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98년)
    - 보호관찰 성범죄자 수강명령 부과
- 2010년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대상 80~90시간 교육
  - 조두순·안양초등생 성폭력 사건(2008년), 김길태(2010년) 사건
  - 일반 성범죄자 20시간
  - 4개소, 3UP(성인식의 수준향상, 성폭력의 책임의식 향상, 사회기술 향상)
- 2011년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소(서울남부교도소)
  -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1년)
    - 성폭력 수형자 이수명령 부과
  - 임상/상담심리 전문가 특별 채용, 9명
  - 아동대상 성범죄자 심리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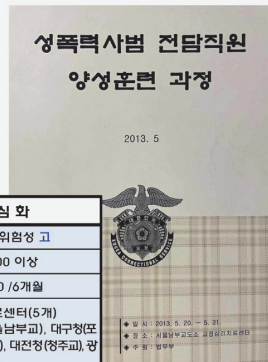
남부교도소, 국내 첫 '교정심리 치료센터' 개소 - 법률신문

2011. 12. 14. -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정의성)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동·장애인 대상 고위험군의 성폭력사범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 국내 교정상담 역사

-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 2012년 전담직원 양성교육
    - 직원양성교육, 100명(2012~2013년)
    - 지방청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소
    - 심리치료센터로 명칭 변경
  - 위험성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성범죄)

		기본	집중	심화
교육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	재범위험성 저	재범위험성 중	재범위험성 고
	이수명령시간	100 이하	101~200	200 이상
교육시간/기간		100/1~3개월	200 /3개월	300 /6개월
교육기관		전국 교정 기관	- 100시간 안양·여주·의정부/창원·인동·대구(경주(교))·충주(경)·순천·목포·전주(교) - 200시간 안양,인동,경주,목포(교)	교정심리치료센터(5개) - 서울청(서울남부교), 대구청(포항교, 밀양교), 대전청(청주교), 광주청(군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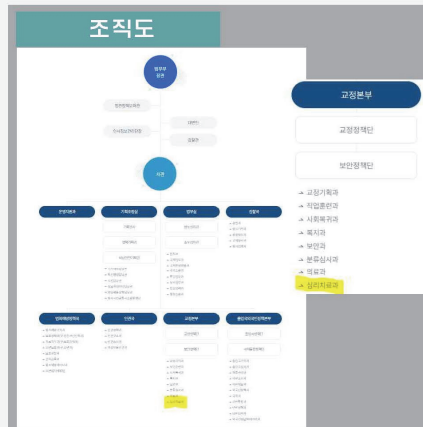


## 교정상담 현황\_조직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2016. 10. 11)
  - 2015년 중독재활과 신설안 행안부 제출



사진출처: 교정본부



## 교정상담 현황\_조직



- 심리치료과
  - 5개(안양, 의정부, 군산, 진주, 천안)
- 심리치료팀
  - 각 교정기관 보안과, 4~6명
  - 보안과 업무 중복(출정, 병원근무, 야근 등)
- 심리치료센터
  - 지방청 사회복지과
  - 5개센터(서울청 2)
    - 목포, 청주(여)
  - 성범죄, 정신질환, 알코올
    - ☞ 센터의 기능과 역할 고려 필요

## 교정상담 현황\_(개인)프로그램

- 개인상담(전문상담)
  - 초기상담: 신입(이입) 수용자
  - 탐색상담: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수용자
    - 중형구형, 선고, 이혼, 가족사망, 폭행피해 등
  - 예방상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수용자
    - 징별 및 자살기도 수용자
    - 8회기, 10일에 1회 이상



## 교정상담 현황\_(집단)프로그램

범죄별	내용	비고
성범죄	인지왜곡, 건강한 성, 사회-정서적 기능, 자기관리, 재범방지 등	이수명령(100~ 500H)
아동학대	양육기술, 의사소통, 분노감정/스트레스관리 등	이수명령(100H)
도박/도벽	정서관리 등	폐지
마약/알코올	약물중독(약물의 영향, 약물과 범죄 등)	이수명령/-
동기없는범죄	관계, 감정/스트레스관리, 인지왜곡 등	
정신질환	약물&증상/정서/스트레스관리, 사회기술	개방(선발)/심화 기관
가정폭력	의사소통, 분노조절 등	이수명령
디지털성범죄	-	이수명령
스토킹	스토킹 행동 진단 및 재범방지 등	이수명령
규율위반	분노, 충동, 폭력성 중심	상습폭력, 경복2교
우울(특화)	우울증상 이해 및 대처	10개 기관
소년수형자	소년사범 대상 프로그램	-

## 교정상담 현황\_(집단)프로그램

- 반응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운영
  - 위험성 정도(고·중·저)에 따른 획일적 집단구성
  - 인지기능, 장애, 수용생활 계획
- 동기부여의 어려움
  - 강제 교육 / 인센티브의 부재
    - 교정시설 내: 교정행사, 직업재활 프로그램, 특별면회
    - 가석방
- 교정시설 내에서의 어려움
  - 프로그램의 집중에 방해되는 제반 요건
    - 교도관 / 수용자(거실 내)
  - 보안/계호의 어려움

## 교정상담 현황\_상담전문인력

### ● 채용현황

년도	임상심리	상담심리	비고
2006년	26	-	아동성폭력,분류심사
2010년	2	-	
2011년	15	6	전문가 9명, 이수평형 실시
2012년	7	-	
2013년	21	-	
2014년	49		
2015년	35	25	
2016년	27	31	
2020년	7		7급, 임상
2021년	4		7급, 임상
2022년	12(6)		7급, 임상
시험과목	특별채용-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 체력검사 / 민간경력자 채용(7급): PSAT		

✓ **임상심리 분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2급(3년)  
 -임상심리사 1, 2급(3년)

✓ **상담심리분야(특채)**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문)  
 -직업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 교정상담 현황\_상담전문인력

### ● 직원 양성 교육

- 종독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 외부기관 위탁교육
- 제기되는 문제
  - 커리큘럼에 의한 체계화된 교육 부재
  - 심리치료에 대한 동기/기대의 차이
    - 배치 & 자원
    - 개인의 경험에 따른 견해의 차이

### ● 상담 전문 인력 운영

- 순환근무
  - 심리치료과/심리치료팀/심리센터, 전문 상담인력은 5년 근무
  -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결여
- 심리치료 외 다른 보직 근무
  - 보안과, 총무과 등
- 심리상담 전문 관리자 부재
  - 기관별 슈퍼바이저





## 제기되는 과제

### ● 효과적인 조직운영

- 심리치료 및 업무의 전문성 보장
- 치료/상담 직렬
- 전문치료기관 및 시설

#### ✓ 독일: 교정시설내 사회치료기관

- 교정시설 부설기관 혹은 사립기관
- 수감후 사회치료기관으로 이송(거부 가능)
- 20~60여명 단위
- 인사채용
  - 교도관: 수용자 인원비율은 1 : 2~3
  - 심리치료사: 수감자 인원비율은 1 : 10
  - 심리치료사들은 치료자 과정 전체 이수 혹은 600시간의 치료실습시간 이수
  - 기관 예산으로 외부 수퍼비전 받을 권한

(윤정숙 등, 2014: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III)

## ※ 교정프로그램 평가

###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로그램 결함(Voorhis & Salisbury, 2016)

사전평가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특성	직원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적)위험요인 평가의 간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설계자의 전문성 결여</li> <li>• 직원의 불충분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정량 불충분</li> <li>• 개인차에 대한 관심결여(반응성)</li> <li>• 의미있는 강화물의 부재</li> <li>• 프로그램 질에 대한 모니터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간 지식의 격차</li> <li>• 업무와 관련된 임상경험/훈련과는 다른 프로그램에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목적에 따른 체계적 평가 부재 (치료과정, 참여자의 상태 등)</li> </ul>

- Correctional Program Assessment Inventory-2000, CPAI-2000(Gendreau & Andrews, 2002)

## 제기되는 과제

###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 ■ 프로그램의 질

-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 전문적인 근거기반 프로그램
  - 매뉴얼에 충실한 실행, 운영 직원
- 효과성 평가

#### ■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참여 & 거부의 권리 / 수용생활 계획과의 연계
- 수용자 특성(반응성)에 따른 전문화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완료 후 인센티브: 탈락 시 불이익
- 추후(출소 전)프로그램

#### ■ 프로그램 참여 효과와 출소 후 관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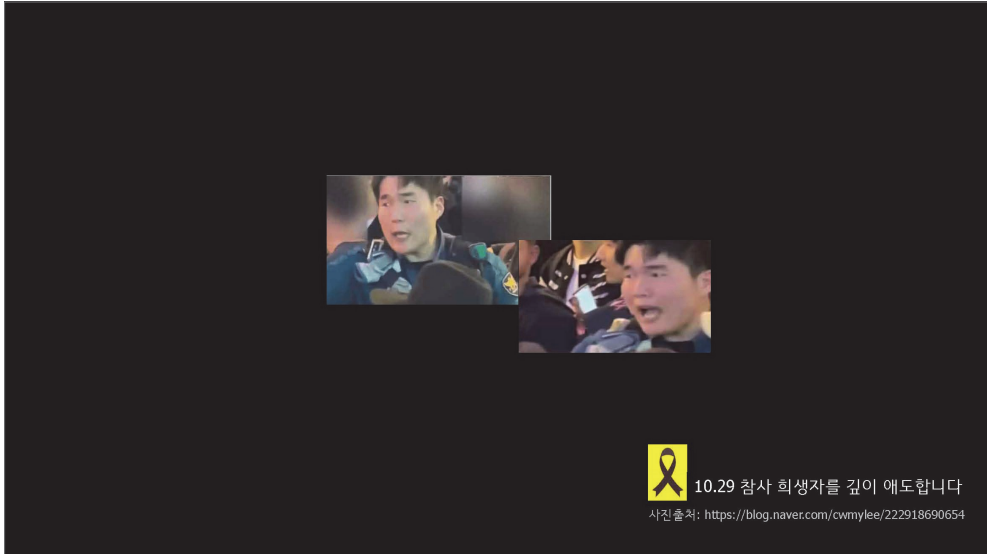
## 제기되는 과제

### ● 교정상담 전문가 양성

- 치료자 특성이 치료로 생긴 변화의 40~60%를 설명(Marshall et al, 2006)
- 상담관련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 관리
  -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과정

자격종명 (사명/학)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입상심리전문가 (한국인상심리학회)
	1급	2급	
자격기준	① 상담 관련 석사 이상+3년 수련 ② 상담심리사 2급 자격+4년 수련 ③ 상담 비관련 석사 학위+상담관련 박사과정 입학+3년 수련	① 상담 관련 석사 재학+1년 수련 ② 상담 관련 학사 학위+2년 수련	①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 이상+3년 수련(3,000시간 이상) ②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과정+2년 수련(2,000시간 이상) ③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 취득+1년 수련(1,000시간 이상)
수련내용	• 개인상담영역: 탈퇴상담 400회기 이상 실시, 수퍼비전 50회 이상 • 집단상담영역: 2개 집단 이상 참여 및 진행, 수퍼비전 2개 집단 이상 • 심리평가영역: 2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상담, 수퍼비전 10사례 이상 • 상담사례 연구활동 30회 이상 참여 • 연구 논문 1편 게재	• 필수수련 • 개인상담영역 • 집단상담영역 • 심리평가영역 • 상담사례 연구활동	•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연구 논문 1편 게재

#### ■ 외부 전문가 관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 **아시아교정포럼**  
법인 Asian Forum For Corrections